

#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박차



시 유일 국보...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추진위 구성...범시민 서명운동 진행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사진) 제자리 찾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국립광주박물관 1층 중앙홀에 있는 광양의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찾기 위해 구성됐다. 기존 12명의 환수위원회에서 22명의 추진

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고 대외협력, 역사고증, 교육, 홍보 섭외 등 총 4개의 실무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인 김종호 광양문화원장, 박두규 광양YMCA이사장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자리 찾기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진되는 제자리 찾기 사업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홍보 캠페인 전개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학술세미나 개최 △석등 제자리 찾기 시굴조사 등이다.

특히 범시민 서명운동은 5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 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서명)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오프라인 서명부 서명)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광양시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시민 역량 결집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한 전방위적인 제자리 찾기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호 상임위원장은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청춘스케치 마을, 청년인구 유입 ‘마중물’

### 2억원 투입 핫플레이스 조성

광양시는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기업 ‘네모’의 ‘청춘스케치 마을’ 조성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전남도 사업이다.

‘청춘스케치 마을’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춘스케치 마을 아지트 만들기, 로컬 디자이너 여정, 지역상권 살리

기 ‘마주데이’ 행사, 청년마을 네트워크 파티 등을 통해 광양읍 구도심지를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재범 청년기업 ‘네모’ 대표는 “청춘스케치 프로젝트를 통해 광양읍을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상생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디자인 마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빛나는 아이디어로 그려나가는 청춘스케치 마을이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이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2일 간식 만들기 및 영양식 조리 실습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비 50% 지원

### 16명 대상... 30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2종) 취득을 통한 실무형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수행기관 모집과 선정 심의를 거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인 ㈜날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교육 인원은 △농업방제 분야 8명 △항공촬영 분야 8명 등 총 16명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2월2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지역 내 거주기간, 드론 보유 여부 등 별도의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16명의 교육생을 선발

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드론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홈페이지(<https://gydrone.modoo.a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광양무인항공교육원(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1길 50, 061-763-24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실무형 드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드론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96명의 실무형 조종인력을 양성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시, 개인정보 관리수준 A등급 달성

### 처리실태 점검·맞춤형 교육 평가

광양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3개의 법적 의무사항 관련 정량지표

와 8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온 점과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 실시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개편돼 평가점수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시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대상 조리실습 ‘인기’

### 연 2회 영양공급 식단 만들기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2일 중마동 힐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와 임산부 48명을 대상으로 간식 만들기 및 영양식 조리 실습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양교육의 일환인 조리실습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간식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바른 식습관 형성

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실습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에는 감자치즈그라탕과 소고기 야채볶음밥 부리또 만들기를 했다.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충분한 영양 섭취와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공급 식단 중심으로 조리 실습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요리하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지며 야채 손질법, 맛을 더하는 양념 사용법도 배워 호응이 높았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한 참여자는 “식재료의 다양한 활용법을 배우고 전문가와 함께 영양 간식 조리법을 실습하니 요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요리를 즐겁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향출생보건과장은 “앞으로도 보충식품 제공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중마도서관 ‘인문지식여행’ 역사 특강 호응

###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 주제

광양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 ‘인문지식여행’ 제1강 역사편으로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 초청 특강을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신병주 교수는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KBS ‘역사저널 그날’, JTBC ‘차이 나는 클래스’ 등 방송에서 명쾌하고 재미있는 역사해설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를 주제로 역사 강연이 펼쳐졌다. 조선 개국한 태조부터 마지막 왕 순종까지 역대 왕들이 활동했던 궁궐과 역사적 주요 인물인 조광조, 송시열, 정약용 등의 자취가 남아있는 문화 유적지들을 살펴보고, 그곳에 깃든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은 “TV로 보던 신병주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으니 정말



광양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 ‘인문지식여행’ 역사편에서 신병주 교수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좋았다”면서 “특히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 새롭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인문지식여행’은 하반기에 2회가 더 운영되며, 9월23일에는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가, 11월13일에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강연을 이어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이나 중마도서관(061-797-3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